

---

## 일반논문

---

[www.kci.go.kr](http://www.kci.go.kr)



## 한계 이승희의 한시에 나타난 도해(渡海) 전후 시정(詩情)의 전개

한길로\*

### [초 록]

본고는 1908년 해삼위로 건너가 한인 공동체와 독립운동기지를 구축하고 또 공교(孔敎) 운동을 전개하며 유도의 복원을 도모했던 한계 이승희(韓溪 李承熙, 1847-1916)의 한시를 검토하는 논문이다. 특히 도해(渡海)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과 도해 이후의 다양한 활동 속에 담긴 그의 내적 고뇌와 번민의 일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당시 이승희는 이 조약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규탄하고 ‘을사오적’의 주살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는 이 일로 옥고를 치르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도해(渡海)를 결심하게 된 당시 그의 심사는 한시에 여실히 녹아 있었다. 해삼위로 떠나기 전에 창작된 그의 시는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 비통과 분한이 가득

\* 길림대학교 조선어과 강사

주제어: 이승희, 『한계유고』(韓溪遺稿), 한주학과, 이산문학, 근대 한문학  
Lee Seung-Hee (李承熙), Hanjoo School (寒洲學派), *Hangyeyugo* (韓溪遺稿),  
Diaspora Literature, Modern Chinese Literature

했다. 각종 개혁조치로 인해 ‘종사와 강상(綱常)이 땅에 떨어지고, 오랑캐와 같았던 일본의 수중에 강토가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상황인식 하에서 그의 내면은 끝을 알 수 없는 탄식과 애탄이 뒤엉켜 있었다. 특히 신하이자 지식인으로서 다가오는 ‘부끄러움’은 결국 그가 해외 이거(移去)를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이 되었다. 도해 이후 그의 시에는 임금을 잃은 유신(遺臣)의 통한과 함께 ‘유민(遺民)이자 유민(流民)’의 처지로 전락해 버린 방랑객의 정서가 대단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요컨대 그의 시는, 대한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지식인의 고뇌와 함께 이역에 머물며 고군분투하던 한 유럽의 우국우세(憂國憂世)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비록 몸은 타향에 있지만, 자신의 고유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한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독립운동에 일조하기 위해 헌신했던 근대 초기 재외지식인들의 분투를 담고 있다. 특히 그 당시 자신의 내면에 찾아온 고독감과 비애 그리고 조국애와 향수의 면모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초기 이산문학의 원형적 면모를 담고 있는 그의 한시는 이방인을 자처했던 근대기 재중 지식인들의 치열했던 삶과 지적 고뇌의 일면을 여실히 응변하고 있다.

## 1. 서론

본고에서는 1908년 일본에 의한 미증유의 국난을 피해 해삼위로 건너간 뒤 중국 일대를 종횡하며 다양한 활약을 보여준 한계 이승희(韓溪 李承熙, 1847-1916)의 한시에 주목하려 한다. 이승희는 부친 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 1818-1886)의 학통과 이어받아 장석영·이두훈·곽종석 등과 함께 한주학파를 이끈 유종(儒宗)이었다.<sup>1)</sup> 그는 1905년 을

1) 이진상의 사후 한주학파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덟 제자, 즉 주문팔현(洲門八賢)을 거론할 수 있다. 이들은 후산 허유(后山 許愈, 1833-1904), 면우 곽종석(倅宇 郭鍾錫, 1846-1919), 자동 이정모(紫東 李正模, 1846-1875), 홍와 이두훈

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을사오적을 주살하고 조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 「청주적신파늑약소」(請誅賊臣罷勒約疏, 『韓溪遺稿』 7)를 직접 상소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로 인해 그는 대구경찰서에서 103일 간의 옥고를 치렀지만, 석방 이후 성주군 국채보상운동 회장을 역임하며 항일 운동을 이어갔다.<sup>2)</sup> 고종의 강제 퇴위를 지켜본 이듬해인 1908년 4월 20일(양력 5월 19일) 해삼위로 건너간 그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 구축과 한인 공동체를 통한 정신적 결속과 연대를 도모했고 또 ‘공교(孔敎) 운동’을 개전했다.<sup>3)</sup> 6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고국을 떠난 지 약 8년 뒤인 1916년, 그는 “나의 곡부의 경영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어서) 그대들이 성취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낯선 이역 만주 땅에서 70세의 일기를 마감했다.<sup>4)</sup>

본래 이승희는 성주 일대에서 퇴계학맥을 이어받은 선친의 학설을 계승하는 데 전념했다. 한때는 이진상의 “심즉리설”(心卽理說)을 둘러싸고 안동의 유림들과 심설논쟁을 벌였던 전형적인 사대부였다.<sup>5)</sup> 하지만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 이후 옥고에서 기인한 1908년의 해외 이거(移去)는, 개인 이승희의 삶과 한주학파의 활동에 있어서 거대한

(弘窩 李斗勳, 1856-1918), 교우 윤주하(膠宇 尹胄夏, 1846-1906), 물천 김진호(勿川 金鎭祐, 1845-1908), 회당 장석영(晦堂 張錫英, 1851-1929), 한계 이승희(韓溪 李承熙, 1847-1916)를 말한다(김낙진(2018), 「주문팔현과 퇴계학자들의 토론에서 드러나는 한주학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p. 123).

- 2) 이승희는 대구경찰서에 수감된 기간의 상황을 「달폐일기」(達狴日記)(1906, 『韓溪遺稿』 卷6)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한길로(2020), 「대계 이승희의 「달폐일기」 창작 배경과 인물 형상 연구」, 『영남학』 7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3) 홍원식(1999), 「한주학파의 공자교 운동」, 『한국학논집』 2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 7.
- 4) 『韓溪遺稿』 卷7, 「年譜」, p. 562(이하 「年譜」). (丙辰)二十八日寅時, 考終. (註) “...我曲阜之營, 今已矣, 君輩可成就得否?...” 여기에서 “곡부의 경영”은 공자교 운동으로 추측된다.
- 5) 김중석(2004), 「한계 이승희의 공자교운동과 유교개혁론 문제」, 『철학논총』 10, 새한철학회, p. 5.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해삼위를 거쳐 만주 일대로 건너가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했던 이 시기 그의 삶은, 기존 연구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에서의 활동에 주목한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크게 1913년 동삼성한인공교회(東三省韓人孔敎會) 수립 과정과 주요 활동을 다루는 동시에 당시 중국 지식인들과의 교류의 일면에 천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산재해 있는 지역 일대의 한인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기지 건설하고 유교공동체 구현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행적에 주목한 연구들도 상당했다.<sup>6)</sup> 다만, 이역의 땅에 던져진 ‘유민’(流民)이자 ‘유신’(遺臣)으로서 60이 넘는 노구를 이끌며 연해주 및 중국 일대를 누볐던 그의 복잡하고 다단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의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다소 소략한 편이다.<sup>7)</sup> 즉 당면한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했던 그가 먼 이역에 머물면서도 조국과 동포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던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찾아온 다단한 희로애락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것이다.<sup>8)</sup>

- 
- 6) 김기승(2007), 「한계 이승희의 독립운동과 대동사회 건설 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김종석(2004), 「한계 이승희의 공자교운동과 유교개혁론 문제」, 『새한철학회』 38, 한국국학진흥원; 왕원주(2007), 「1910년대 전반기 한계 이승희의 중화사상과 민족인식」, 『역사교육』 103, 역사교육연구회; 윤현태(2018), 「한계 이승희의 중화민국 인식」, 『중국인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 중국인문학회; 이상호(2017), 「대동사회, 변법인가? 수양인가?」,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이종수(2018), 『근대 한국의 유교개혁론과 공교운동』, 선인; 이택동(2012), 「대계 이승희론」, 『시학과 언어학』 22, 시학과 언어학회; 임종진(2019), 「한계 이승희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분석」, 『퇴계학논총』 33, 퇴계학부산연구원; 정병석(2010), 「한계 이승희의 도덕적 종교관」, 『유교사상연구』 39, 한국유교학회; 정병석(2017), 「한계 이승희의 한주화 계승과 현실의 대응」,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황영예(2010), 「한계 이승희와 해창 송기식의 공교운동의 상이성」, 『유교사상문화연구』 39, 한국유교학회.
- 7) 이승희의 한시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한말 그가 남긴 한시 가운데 일본에 대한 저항 의지와 그 속에 담긴 변민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한길로(2020), 「한말(韓末)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의 한시에 나타난 저항과 변민의 일면」, 『용봉인문논총』 57,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러한 문제의식 하, 본고는 먼저 해외로 이거(移去)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한시에 집중하려 한다. 이를 통해 그가 해삼위, 즉 블라디보스토크로 몸을 옮기게 된 배경과 동기 그리고 그 당시의 그의 심사 속에 내재된 고뇌와 갈등, 회한과 우수(憂愁)의 일면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수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고국을 등지고 해외로 떠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국과 동포들을 생각하며 온몸으로 헌신한 그의 내적 실상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려 한다. 특히 국외에 머물던 기간에 창작된 그의 한시의 다양한 특성과 함께, 이산(離散, Diaspora)<sup>9)</sup>문학의 면모에도 주목할 예정이다. 한국문학사의 초

8) 최초 『대계집』(大溪集)은 이승희의 장남 이기원(李基元, 1885-1982)의 주도로 1927년에 간행되었다. 이후 1976-8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초간본으로 참조, 누락된 것을 보충하여 『韓溪遺稿』(총 9권, 한국사료총서 제23)를 간행하였다. 본고의 저본 역시 이 책임을 밝힌다. 한편 그는 이역 중국에서 7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모두 683제 797수의 시를 작성했다[『한계유고』 권1의 「서유록병서」(西遊錄并序)는 제외] 해삼위로 떠나기 전 국내에서 남긴 시는 555제 664수였고 도해 이후에는 128제 133수를 남겼다. 수치상으로는 약 9년간 해외에 머물며 연간 14.7수가 작성되었다. 참고로 전체 시의 연도별 수치는 다음과 같다(앞의 논문 재인용).

창작년도	현황	창작년도	현황
1867(丁卯) (21세)	5제 5수	1900(庚子)	14제 20수
1868(戊辰)	1제 1수	1901(辛丑)	20제 21수
1872(壬申)	11제 11수	1902(壬寅)	8제 8수
1878(戊寅)	1제 3수	1903(癸卯)	31제 32수
1885(乙酉)	2제 2수	1904(甲辰)	39제 49수
1886(丙戌) (40세)	1제 1수	1905(乙巳)	41제 52수
1889(己丑)	31제 32수	1906(丙午) (60세)	46제 53수
1890(庚寅)	17제 19수	1907(丁未)	32제 49수
1891(辛卯)	18제 18수	1908(戊申)	17제 26수
【1892(壬辰)~1893(癸巳)】(추정)	26제 26수	1909(己酉)	1제 1수
1894(甲午)	30제 30수	1911(辛亥)	2제 2수
1895(乙未)	33제 33수	1912(壬子)	16제 17수
1896(丙申) (50세)	59제 77수	1914(甲寅)	21제 29수
1897(丁酉)	46제 62수	『西遊錄』(1914)	87제 87수
1899(己亥)	27제 31수	총합	683제 797수

기 이산의 무대는 연해주와 만주 일대가 중심이 되었고, 주요 문학자들은 이승희와 같은 문인사대부들이었다. 즉 당시 이승희를 포함한 1910년대 이산자들의 한문학은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사)의 초기를 장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국외에 머물던 그의 한시 속에 담겨진 이산문학의 면모를 드러내는 일은 이승희 한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동 시기 간도 일대에 정착한 경재 이건승(耕齋 李建昇, 1858-1924)과 같은 유림·남통(南通)의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 1850-1927), 상해(上海)의 예관 신규식(畎觀 申圭植, 1879-1922) 등 중국에 머물던 지식인들의 이산(한)문학 연구를 보다 다채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sup>10)</sup>

- 
- 9) 미국의 정치학자 사프란(William Safran)은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1) 특정 지역에서 외국의 주변적 장소로의 이동, (2) 조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나 신화의 공유, (3) 거주국 사회로의 온전한 진입에 대한 희망의 포기과 그로 인한 소외와 고립, (4) 후손들이 결국 귀환해야 할 장소로서 조국의 이상화, (5) 조국의 회복과 유지·번영을 위한 정치경제적 헌신, (6) 조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공속의식 등을 그 특징들로 지적했다 [윤인진(2005),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5-6].
- 10) 최근 근대기 연해주 및 중국에 머물던 문인(유림)들의 한문학 속에 담긴 이산문학의 면모를 다룬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광미선(2009), 「김택영의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한국고전연구』 20, 한국고전연구회; 김승룡(2006), 「김택영의 송도 복원 작업의 의미: 방법으로서의 디아스포라」,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이덕향(2017), 「창강 김택영 중국 체류기 한시의 일면」, 『한문고전연구』 35, 한국한문고전학회; 이은영(2012), 「20세기 초 유교지식인의 망명과 한문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은주(2012), 「신규식 한문시의 디아스포라 특성 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길로(2020), 「1910-20년대 재중 지식인의 한문학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도해(渡海)의 배경과 내적 번민의 표출 양상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전후로 대한제국을 떠나 해외 특히 중국으로 이주하는 지식인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 구체적인 배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도해(渡海)의 동기에는 ‘국망과 일본의 지배가 구체화되는 현실을 그저 지켜볼 수 없었다.’라는 공통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1905년 8월 대한제국을 떠나 상해로 향했던 김택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섬나라 오랑캐의 노예가 되는 삶’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sup>11)</sup> 「연보」에 따르면 이승희는 1906년 대구경찰서 출옥을 계기로 해외로의 이주를 고려하게 되었고, 선친인 이진상(李震相)이 중국과 조선의 예학서(禮學書)를 참고하여 각종 사례를 집대성한 저술인 『사례집요』(四禮輯要, 1906)의 간행을 기다렸다가 그 일을 도모했다.<sup>12)</sup> 즉 이승희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재기와 함께 유학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유(先儒)들이 보여준 상소를 통한 의견 개진이 막히고 또 무용해진 상황에서, 이제 그는 그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나아갔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소의 건으로 일경에게 붙잡혀 대구옥에 갇히면서 그의 일생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성주를 중심으로 퇴계학맥을 발전시킨 선친 이진상의 아들이자 제자로서, 또 전형적인 성리학자의 일생을 보내던 그의 삶의 획기적인 전기였다.<sup>13)</sup>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됨으로써 그는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

11) 『梅泉集』 卷4, 「聞金滄江去國作」(乙巳稿9), “新年來, 頗有萬里之想, 倘借天靈, 得終老於蘇浙之間, 則不猶愈於作島兒之奴耶?” 참고로 각주의 인용문은 황현이 김택영에게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한 내용의 일부를 옮겨 적은 것이다.

12) 「年譜」, p. 548. “四月二十日, 發浮海行. (註)先生自出達狹, 抱浮海之意, 待四禮輯要之刊行而圖之.”

13) 김중석(2004), 「한계 이승희의 공자교운동과 유교개혁론 문제」, 『철학논총』 10, 새한철학회, p. 5.

지 못했다며 자책했고, 이제 이 땅은 오랑캐의 땅이 될 것이기에 선친을 포함 선유들을 불 면목조차 사라졌다. 더욱이 그에게 당시는 각종 개혁조치들로 인해 이른바 “훼복훼형”(毀服毀形)<sup>14)</sup>이 횡행하는, 난세 중의 난세였다. 그는 1906년 4월, 마침내 감옥을 나오게 되었지만 이런 시국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했다. 아래의 시는 이러한 당시의 복잡한 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 여관에서 저녁에 일어나 생각나는 대로 읊다 旅館夜起謾吟 〉

넉 달간 옥중에선 매번 단잠 잤었는데 牢中四朔每甘眠,  
오늘 밤 여관에선 꿈조차 번민이구나. 旅館今宵夢轉煩.  
우리들의 공부는 진실로 무용했나니 吾輩工夫眞沒用,  
몸과 가문 나라마저 모조리 망연하도다. 身家邦國盡茫然.<sup>15)</sup>

위 시는 대구경찰서에서 석방되던 때의 감정을 읊은 「四月初八日被驅出獄門外口吟」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은 갈 곳을 잃어버렸구나.’[宇宙如今失所之]라고 표현한 것과 유사한 감정을 보여준다.<sup>16)</sup> 인용한 시 역시 103일간의 옥고를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그는 깊은 자책과 번민에 휩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은 출옥으로 인해 비교적 편해졌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니 막연하고 요원하여 마음은 감옥에 머물 때보다 더욱 복잡해진 느낌이다. 꿈속에서조차 번민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통해 그의 내면에

14) 당시 유림들은 복제개혁과 단발령을 “훼복훼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의암 유인석은 “지금 훼복훼형을 보니 이적이 되고 짐승이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던 바 있다(『毅菴集』卷38, 「書贈李紀仲元玉歸故國」, “今見毀服毀形, 爲夷爲獸.”).

15) 『韓溪遺稿』 1, p. 104.

16) 『韓溪遺稿』 1, p. 104.

근심이 다대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강요에 의한 을사조약이 체결을 막지 못한 유림으로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일본에 의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가의 공부가 모두 막연해졌음을 탄식하며 시를 매조지었다. 천하는 망망대해 속에 빠져 버린 것과 같았던 것이다.

그의 인식 속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세상은 ‘사람과 금수, 중화와 이적이 뒤섞인 곳’[人獸華戎今海內]이었다.<sup>17)</sup> 하지만 때마침 이 시기는 항일 민족 운동가들이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항일투쟁을 위한 새로운 근거지를 찾기 위해 미주를 포함 서·북간도·연해주·만주 일대로 떠나고 있었다.<sup>18)</sup> 하지만 선친 이진상의 아들이자 한주학파의 종장 역할을 하고 있던 그가,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해외로 떠난다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 즉 그가 ‘나라를 떠나려는 것이 혹 멀리 떠나 은둔하며 시대의 과업을 잊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sup>19)</sup> 다시 말하면 그의 해외로의 이거에는 ‘자신의 일신만을 깨끗이 하고 세상의 일은 잊은 채 고원하게 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로 떠나려는 뜻을 더욱 강하게 견지해갔다. 지기이자 동지였던 면우 광종석은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도는 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그의 제안을 고사하고 국내에 남았지만,<sup>21)</sup>

17) 『韓溪遺稿』 1, 「元朝」, p. 111, “今朝丁未我生年, 世事推來却惘然. 人獸華戎今海內, 胞生壯老此山巔.”

18) 박민영(2001). 「유인석의 국외 항일투쟁 노정」, 『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p. 161.

19) 李基元, 「痛慕錄」, 『韓溪遺稿』 9, p. 522. “府君自去國, 或疑其高蹈遐邇爲果忘.”

20) 이택동(2012), 「대계 이승희론」, 『시학과 언어학』 22, 시학과 언어학회, p. 273.

21) 이택동(2010), 「면우 광종석의 당대 대응과 인식론적 기저」,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연구학회, p. 299.

그는 국운이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상황과 유도의 붕괴를 그냥 좌시할 수 없었다.

이 사이,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였다. 일본은 강력한 무력을 통한 압제 외에도 경제적인 예속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갔다. 일본은 통감부 설치를 전후로 차관을 급속하게 늘려나갔지만, 대한제국은 식민지화를 획책하는 사업에 지출되는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는 곧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식민지화의 일환이었다. 이에 1907년 1월 대구를 시작으로 민중들의 국채보상운동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인근에 있던 이승희 역시 이에 참여하자는 통문을 향중(鄉中)에 보내고 3월 19일 성주 장날에 모임을 갖고 발기하였다. 회장을 맡은 그는 자신의 회갑연 비용을 의연금으로 출현하였는데 이승희 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기로 열화와 같은 분위기는 식을 줄 모르고 번져나갔다.<sup>22)</sup> 그럼 1907년 2월 19일(양력 4월 1일) 회갑을 맞은 그의 심사를 직접 살펴보자.

〈 갑일서회 甲日書懷 〉

종사(宗社)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 몸이 무슨 경사라,  
宗社塌地身何慶,  
호위(蒿蔚)<sup>23)</sup>의 끝없는 비통에 눈물 마르지 않을 뿐이지.  
蒿蔚終天淚不窮.  
바라는 바 말하노니, 가문과 나라에 철인 많이 나서어  
願言家國多生哲,

22) 김형목(2004), 「성주지역 국채보상 운동의 지역운동사에서의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 14-18.

23) 본래 호위(蒿蔚)는 천한 썩을 가리키는데 본시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 불초한 자식을 의미한다. 이는 『시경』 「소아(小雅) 육아(蓼莪)」에서 온 말인데 [蓼蓼者莪, 匪莪伊蒿], 통상 이 시는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어 하늘처럼 끝없는 은덕을 갚을 길이 없기에 부모를 몹시 그리워하여 부른 노래로 평가된다.

우리의 도(道)와 우리나라 나날이 함께 융성하는 것이라네.

吾道吾邦日共隆.<sup>24)</sup>

위 시에서 드러난 것처럼 회갑을 맞은 이 날, 그의 심정 어디에도 기쁘거나 즐거운 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의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은 역시 종묘와 사직이 땅바닥에 떨어진 암울한 현실이었다. 평소에도 감히 잊고 지낼 수 없던 부모님 생각은, 61번째 생일에 더욱 거세게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쉽게 멈추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는 삼일 사이에 모친상과 부친상을 연달아 당했기에, 뼈에 사무칠만한 그 비통함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25)</sup> 나라마저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퍽 비관적으로 여겨지고 한탄스럽게 인지되지만, 그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문의 부흥과 나라의 흥성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의 관점에서 유가의 도는 나라의 경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나라의 흥망 여부는 곧 유도의 융기(隆起)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임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에게 있어 구국의 방도란 곧, 유도의 부흥이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도(吾道)와 오방(吾邦), 즉 유도와 대한제국이 함께 일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활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1908년 4월 20일(양력 1908년 5월 19일) 마침내 결심을 이행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24) 『韓溪遺稿』 1, p. 111.

25) 『한주집』의 「연보」에 따르면 이승희가 40세 되던 1886년 10월 13일 모친인 함양 이씨가 돌아가셨고 이를 뒤 이진상도 운명을 달리했다(『寒洲集附錄』 卷1, 「年譜」, “十三日, 夫人興陽李氏歿, 十五日子時, 考終于外寢.”).

〈 이달(4월) 20일 나라를 떠나 바다 건너려는 길에서 읊다  
是月二十日將去國渡海路上口呼 〉

난세의 시대 유자의 웅졸이 부끄러워	亂代慚儒拙,
밤길 틈타 멀리 떠날 것 생각하네.	暮途思遠遊.
강과 산 넘어 구만리,	河山九萬里,
어떤 곳에서 『춘추』를 읽으리오.	何處讀春秋. <sup>26)</sup>

결국 고국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뜻을 이행하는 발걸음을 댈 그는, 자신이 이 먼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환기해 본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참”(慚), 즉 참담함과 부끄러움이었다. 그 이유는 망국에 이르는 기간 직접 의병이 되어 적들을 물리치지 않았던 자신이 펍 웅졸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즉 그가 부득이 조국을 등지는 이유는, 유교를 공부한 사대부로서 당대의 현실을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다시금 ‘유’(儒)의 본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였다. 또한, 그의 원유(遠遊)는 곧 『춘추』를 논하며 당당하게 대의명분을 외치려는 의지의 표상이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은 『춘추』의 대의를 논할 수 없는 땅이었고 자신 역시 감히 ‘춘추’를 거론할 수 없는 웅졸한 사대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몸은 성주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온정(溫井), 즉 동래온천에 머물며 목욕재계의 시간을 갖고 이어서 초량(草梁)에서 시를 짓게 되는데, 국내에서의 마지막 시였다.

26) 『韓溪遺稿』 1, p. 121.

〈 초량에서 바다를 바라보다 草梁觀海 〉

노중련(魯仲連)<sup>27</sup>의 바다에 당도하리니 行到魯連海,  
어느 때 밝은 달 오려나. 幾時明月來.  
단지 보이는 것은 검은 연기 먼지뿐인데 祇見烟塵黑,  
하늘 바람 불어도 개운히 없애지 못하구나. 天風吹不開. (其二)<sup>28</sup>

진정으로 나라를 떠나는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 그는 초량의 바다에서 자신이 떠나려는 동쪽의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 패악 무도한 ‘진(秦)의 백성이 되느니 차라리 동쪽 바다에 빠져 죽겠다.’며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노중련의 고사를 거론하며, 그가 바다를 건너려는 이유 역시 결단코 오랑캐와 같은 일본의 신민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그에게 그것은 죽음과 비견할 만큼 뼈아프고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역시 막막하고 막연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곳에 간다면 밝은 달을 마주할 수 있을지 또한 저 망망대해의 뒤에 어떤 세계가 자신을 기다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신의 길과 노정이 과연 옳은 길인지 혹은 시대의 요구에 정합(整合)한 노선인지 그 역시 장담하기 어려웠다. 때 마침 바다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바람도 그의 곁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것들이 곧 자신의 처한 현재의 모습과 같아 수심이 절로 깊어진다. 잔뜩 찌푸린 저 먹구름이 마치 연진(煙塵), 즉 봉화

27) 노련(魯連): 노중련(魯仲連)을 말한다. 그는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선비로 그가 조(趙)나라에 가 있을 때 진(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수도인邯鄲(邯鄲)을 포위하였는데, 이때 위(魏)나라가 장군 신원연(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황제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魯仲連)이 “저 진(秦)나라가 방자하게 황제를 자칭하고 죄악으로 천하에 정사를 한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을 뿐 내가 차마 그 백성은 될 수가 없다.”[彼卽肆然而爲帝, 過而爲政於天下, 則連有蹈東海而死耳, 吾不忍爲之民也.]고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후퇴시켰다고 한다(『史記 卷83 魯仲連列傳』).

28) 『韓溪遺稿』 1, p. 123.

연기와 말발굽 먼지처럼 느껴진 것이다. 바람도 개운히 걷어내지 못하는 먹구름을 바라보니, 도해(渡海)를 앞둔 그의 미래는 보일 듯 말듯 했고 또 먹먹하게 여겨진다. 해외로 떠남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발걸음을 대단히 무거웠던 것이다.

해삼위로 떠나기 전 그의 내면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히 복잡했고 내적 고뇌 또한 심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내적 갈등과 변민은, 나라의 망국과 유도의 붕괴 그리고 유자로서의 ‘부끄러움’으로 나타났다. 그의 시에서 표출된 것처럼 당시는 각종 개혁조치로 인해 자신의 몸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유도의 강상과 나라의 안녕 또한 모두 산산 조각난 상황이었다. 이 위난의 시기를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그의 내면에는 한탄과 비애와 동시에 ‘부끄러움’이 찾아와 견디기 어려웠다. 바다를 건너가 나라와 유도 그리고 백성들을 살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결심하고 행장(行裝)을 꾸려 부산에 내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여 수심과 변민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떠나야 했다. 앞서 을사조약 당시 상소를 통해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것처럼, 문자의 의리를 깨우쳐 유학을 배운 자로서의 ‘직분’에 다해야 했기 때문이다.<sup>29)</sup>

29) 한편 그는 자신의 투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달폐일기」에서 상소를 왜 했는지, 그리고 다시 상소할 것인지를 묻는 일본인 경부(警部)의 심문에, “직분”을 입각하여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며 항의했다. 즉 ‘문자와 의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상소는 곧 나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다(『韓溪遺稿』卷6, 「達狹日記」, p. 423, 余曰: “我一腐儒耳, 但知文字義理, 上疏則吾職也.”).

### 3. 층첩되는 유민(遺民)의 민울(悶鬱)과 유신(遺臣)의 우국 의식

한인들이 러시아 영토에 머물며 가족을 일구고 촌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863년을 기점으로 한다. 주요 정착지는 티진헤(Tizinhe, 地新墟)를 중심으로 포시에트 지방이었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카레 이스카야(高麗人村)·슬라보드카(開拓里)’라는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후 그들은 1911년 만주 일대에 퍼진 전염병 페스트의 영향으로 정착지를 옮기고 거주지를 규제 당했다. 이렇게 새로이 정착된 주거 지역을 신한촌(新韓村)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이후 한인사회의 중심이었다고 전한다.<sup>30)</sup> 1908년 해삼위에 도착한 이승희 역시 이러한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다. 해삼위에 정착한 그의 목적 역시 이 시기 해삼위에 정착한 여타의 애국지사들과 다르지 않았다. 즉 생계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유도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다시금 독립의 불씨를 다시금 살리고 유도를 부흥시킬 희망의 땅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1908년 5월 9일 그 역시 바로 이 해삼위에 도착했다.<sup>31)</sup>

30) 이상근(1994), 「한인 노령(路嶺) 이주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9-30. 참고로 본 논문(p. 35)에 따르면 1910년 당시, 연해주에 거주한 전체 한인 수는 51,454명으로 집계되었다.

31) 해삼위에 갈 준비에서부터 당도의 상황을 「연보」(年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무주의 선비 류완무(柳完茂)가 광복의 뜻이 있어 해외에 은밀히 연락을 취하여 초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서로 등정(登程)의 날을 약속하고 가묘에 고사한 뒤 부산에 도착하여 만년대(萬年台)에 올라 동래(東萊) 정현덕(鄭顯德, 1810-1883)을 조상하고 온정(溫井)에서 목욕재계하시고는 마침내 바다를 건너셨다. 문인 면와(勉窩) 이덕후(李德厚, 1855-1927), 정인하(鄭寅夏)와 이수인(李洙仁)이 모시고 따라갔다.”[「年譜」, p. 548. 四月二十日, 發浮海行. (註) 先生自出達狹, 抱浮海之意, 待四禮輯要之刊行而圖之, 聞茂朱士人柳完茂, 有光復志, 潛通聯絡於海外, 至是招請, 相與約日登程, 告辭家廟, 行到釜山, 上萬年台, 吊鄭東萊顯德,

〈 해삼위에서 이자유<sup>32)</sup>를 귀가시키며 치아와 머리카락을 봉하여  
아이에게 보내다 在海蔘威送李子裕還家封齒髮遺兒寄 〉

서쪽에서 올라 동쪽을 밟은 나의 이번 행차 西登東蹈我今行,  
고향 산에 돌아가 뼈 묻음을 쉬이 바랄손가. 歸骨鄉山詎易望.  
머리털 잘라 모두 봉해 보내려하니 爲將落髮偕封去,  
선천(先阡) 부근에 묻으면 절로 무방하겠네. 埋近先千自不妨.<sup>33)</sup>  
(其二)

해삼위에 도착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바로 ‘고향’이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사지(死地)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치아를 함께 봉해 고향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불편했지만 매년 전귀(全歸), 즉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상한 데 없이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참고 있던 치아를 뽑아 머리카락과 함께 봉했다.<sup>34)</sup> 이를 통해 선영을 등지고 이역으로 건너온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불손함에 ‘미안’(未安)한 자신의 내면을 드러냈다. 이제 그는 이역에 머물다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 운명을 받아 들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참담함은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분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연결되었다. 즉 선천 옆에 묻히길 바란다는 표현은 곧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유도의 진흥과 조국의 독

浴温井, 遂渡海, 勉窩李公及門人鄭寅夏·李洙仁陪從.]

32) 이수인(李洙仁, 1880-1963): 자가 자유(子裕)이며, 호가 침산(枕山)이다. 성산 이씨 일가로 이승희보다 33세 연하다. 그와 함께 해외로 건너가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김창숙이 중심이 된 이른바 “파리장서운동”에 연루되어 일경에 피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건국포장(1995)이 수여되었다[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참조].

33) 『韓溪遺稿』 1, p. 123.

34) 위와 같음, “(其一)傍牙橫臥久爲妨, 每念全歸不忍傷. 一朝舌葉恢餘地, 語節圓通肉味長.”

립에 전력을 다하여 그 죄책감을 다소나마 씻겠다는 의지의 발로이자,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그는 본격적으로 이역에서의 생활을 이어갔다. 해외에서의 그의 활동은 크게, 인근의 한인들을 규합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대외 활동과 중국인과 접촉하며 공교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 그리고 한주학파의 도통을 계승하고 공교에 도움이 되는 저술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삼위에서 그는 헤이그에서 돌아와 일대에 머물던 이상설(李相奘, 1870-1917)과 자주 왕래하였는데, 두 사람은 각지에 흩어져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동포들의 현실을 애통히 여기며 정착촌을 구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었다.<sup>35)</sup> 이에 다양한 후보지를 모색한 결과, 길림성 밀산부 봉밀산(吉林省 密山府 蜂蜜山)<sup>36)</sup> 일대로 결정하고 이듬해(1909) 겨울 이주하였다. 그곳을 한흥동(韓興洞)으로 명한 그는 자신의 호를 한계(韓溪)로 바꾸며 이곳을 기반으로 한국의 흥성을 염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자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다.

〈 중화 밀산부에서 장손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표하다  
中華密山府聞長孫生志喜 〉

(前略)

우리 가문의 일월 두 눈에 비추니	吾家日月雙瞳照,
대륙의 풍운을 한 손으로 내 저어 보노라.	大陸風雲一手麾.
어찌 나라 온전히 하여 대 치욕을 씻어내랴	那得全邦滄大耻,

35) 유준기(2005), 「독립운동기지 한흥동 건설과 독립운동가의 망명 경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 9.

36)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밀산(密山)은 흑룡강성 계서(鷄西)의 현급(縣級)시이다. 흑룡강성 남부에 위치한 이곳은 러시아 영토 한카호(Ханка湖, 중국에서는 흥개호(興凱湖)라 칭한다)의 경계다.

남은 생 너를 안고 시서(詩書) 알려줘야 하건만. 餘生携汝付書詩.<sup>37)</sup>

첫째 부인을 잃고 1873년(27세) 다시 결혼한 그는 첫 딸을 얻은 뒤, 과거시험으로 인해 서울에 머물고 있어 다소 늦은 나이인 39살에 비로소 장남을 얻었다. 장남이 태어난 후 1년 만에 부친과 모친이 곧바로 사망하시어 그는 부모님에게 손자를 양육하는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신은 63의 노구가 되었고 심지어 그는 이역의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장남을 얻은 지 약 24년 만에 드디어 장손의 소식을 듣게 된다.<sup>38)</sup> 대를 이을 장손이 태어나자 그는 가문에 해와 달이 비추는 것처럼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대륙의 풍운을 한 손으로 가볍게 헤집고 전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 지나가자 깊은 처연함이 다가온다. 장손이 살아야 할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 있었고, 자신은 ‘격대(格代) 교육’ 전통에 따라 손자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며 오묘하게 가문을 일구는 평범한 노년기의 삶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39)</sup> 나아가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면 아이가 태

37) 『韓溪遺稿』 1, p. 123. 생략된 전구(前句)는 다음과 같다. 六十三初孫一兒, 兒生五月始聞知. 洲翁宗嫡恩年值, 岡老源承夢感奇.

38) 두 달 전 며느리의 회임 소식을 듣고 그는 불현듯 자신의 꿈에 나타난 아버지와 이원조를 떠올렸다. 그는 이것을 곧 태몽이자 길몽으로 조상님의 보살핌과 같은 것처럼 인식하며 내심 사내아이로 기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의 자주(自註)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기유(1909) 윤 삼월 십일 밤, 꿈속에서 선군께서 집에 강림하셨다. 곁에는 세 노인이 있었는데 선군께서 내게 알연하여 절하라 명하시고는 “한강(寒岡, 鄭述)·성재(性齋, 許傳)·응와(凝窩, 李源祚) 선생이시다.”라고 하셨다. 응와 선생은 내게 하나의 검과 거울을 남겨주셨는데 깨고 나니 기이했다. 기원이 와서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여 그 날짜를 살펴보니 꿈과 서로 부합하였다(己酉閏二月初十夜, 夢先君降臨于家中, 傍有三位大老, 先君命承熙兒拜曰是寒岡先生, 及性齋凝窩先生也, 凝翁遺承熙一劍一鏡, 覺而異之, 到六月, 兒基元來言兒生, 考其日月, 與夢相符)[참고로 이원조(李源祚, 1792-1872)는 이진상의 스승이자 가까운 집안 어른으로 이승희는 이원조의 문집 「응와집」(凝窩集)을 교감한 후 발문을 짓고 직접 간행했다].

39) 조희연(2019),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묵재(默齋)의 육아관과 유아교육적 의

어난 경사스러운 일에 시를 지어서 기쁨을 표시하고 그것을 친지와 주변의 지인에게 보내어 함께 희소식을 공유했을 것이다. 또 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시에 차운하여 축시를 지어 화답하고 축하 선물도 보냈을 것이다.<sup>40)</sup> 하지만 이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다. 이 역에서 들은 장손 소식 앞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시름은 이처럼 깊어가지만, ‘대 치욕’을 갚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향한 분탄(憤嘆) 역시 가중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약 4년을 머물며, 이주민들과 망명객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이승희는 새로운 길을 다시 개척하게 된다.<sup>41)</sup> 남하(南下)하여 안동현(安東縣, 지금의 단동)으로 간 것이다. 4년 동안 그곳을 지켰지만, 한인들의 단취(團聚)가 어려워지고 이상설 또한 일 때문에 해삼위에 머물고 있어 서로 교류하기 어려워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다. 이때, 중국에 신해혁명이 일어나 혁명정부가 점차 두서가 있게 되자 그것을 하나의 서광으로 여기고 떠날 것을 결행하게 된다. 더욱이 그곳에는 당시 기호학파의 거유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 1862-1933), 강제병합 당시 유림계를 회유하기 위한 일제의 은사금을 단호히 거부하고 중국행에 올랐던 안효제(安孝濟, 1850-1916)와 대눌(大訥) 노상익(盧相益, 1849-1941)과 같은 개신 유림들이 머물고 있어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었다.<sup>42)</sup> 이곳으로 이주한 그는 유림세력을 규합하고 한인들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동삼성한인공교회”(東三省韓人孔教會)를 설

미], 『인격교육』 13, 한국인격교육학회, p. 92.

40) 김영선(2014), 『『양아록』을 통해 살펴본 조선 중기 사대부가의 출산 관련문학』, 『연민학지』 22, 연민학회, p. 179.

41) 유준기(2005), p. 13.

42) 「年譜」, p. 522. “癸丑(1913)先生六十七歲, 自蜜山府, 南下至安東縣, 館于盧箕鉢家. (註)北地之營已四載, 而韓人之團聚零星, 溥齋亦以事留在海港, 不能與之終始, 前途甚艱關, 中國革命政府, 稍有頭緒, 爲一觀光, 決意而作此行, 孟公輔淳已避地在此, 校理安公孝濟, 校理盧公相益, 亦寓接梨樹, 相與來叙懷.”

립하고 12월에는 공교회의 관계자를 직접 만나 대의를 논하기 위해 북경으로 향한다.<sup>43)</sup> 하지만 북경에 머물던 그의 마음에는 큰 기대와 함께 유민이자 유신으로서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시 그의 심사에 자신은 “집에는 주인이 없고 나라에는 군주가 없어, 끝내는 산골짜기의 수초들”[家而無主國無君，終作山谿水草羣]<sup>44)</sup>이 된 것 같았다. 중국 이곳저곳을 이주하고 또 공자교 사람들을 찾아다니던 그는 부정할 수 없는 ‘백발이 눈과 같던 망국의 유민’[亡國遺民頭似雪]이었기 때문이다.<sup>45)</sup>

1913년 겨울 북경에서 직접 공교회 관계자들을 만난 그는 북경의 공자교 간부들에게 깊은 신임을 얻었다. 이듬해 초에는 중국의 학교 교과에 공교이념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저술을 요청받고 「공교교과론」(孔教教科論)을 집필하고 있었다.<sup>46)</sup> 이 자리에서 공자교 지회를 승인받은 그는 분명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공교회로부터 지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국과 연결되어 고립되지 않는 단체가 되었고, 유교 본향의 지식인에게 한국유교의 심원한 깊이를 알렸기 때문이다. 북경에서 공자교 관계자들과의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한 그는, 시간을 내어 꿈에도 그리던 성향(聖鄉) 곡부(曲阜)로 향한다. 한국의 유럽에서 방랑객이자 이산인의 신세가 된 그에게 그곳은 어떤 곳보다도 각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43) 「年譜」, p. 523. “十二月辛卯，入北京館于西河沿東昇棧。(註)先生欲與中國士大夫，講論大義者久矣，至是決意西行，基仁及芮大傳陪從。”

44) 『韓溪遺稿』 1, 「共和門」, p. 138.

45) 『韓溪遺稿』 1, 「過舊皇宮」, p. 138.

46) 서동일(2013), 「1910년대 한중유림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 166.

〈 곡부로 떠나며 發曲阜行 〉

주공의 나라이자 공자님의 고향                    周公之國仲尼鄉,  
만고로부터 중원은 바로 이 고을이었지.    萬古中原此一坊.  
강상과 예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綱常禮樂今安在,  
떠돌던 아이 이제 부모님 댁 찾아 간다네. 弱喪兒尋父母堂.<sup>47)</sup>

곡부로 떠나는 그의 마음에 기대와 감격이 함께 샘솟음을 알 수 있다. 그곳으로 향하던 그의 마음에는 중국의 시작과 기원은 다름 아닌 주공과 공자로 이어진 유교 문명에 있음이 환기되며 공교운동에 더 큰 각광이 있길 바라는 간절함이 자라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다. 공자교의 성지인 곡부는 예외였지만, 중국의 각 지역은 근대화가 속도를 내며 유교질서가 조금씩 와해되어가고 있었다. 또 1911년 신해혁명을 거치며 중국은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당시 중국의 상황을 공자 이래로 쌓아온 강상과 예악을 잃어버린 중차대한 위난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비상의 시국에 곡부로 향하는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약상(弱喪)으로 규정하며 고향을 잃고 떠돌던 자신이 부모의 집을 가는 것에 비견했다.<sup>48)</sup> 그에게 그곳은 최후의 보루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민족차이를 넘어 유교문명의 세례를 받은 후예로서 중국과 한국이 문화적으로 연대하고 합심하여 “함께 요순의 신하가 되길 기대”했다.<sup>49)</sup> 즉 그의 내면에서 공자는 부모와 같고 곡부는 고향처

47) 『韓溪遺稿』 1, p. 152.

48) 약상(弱喪)은 어린 나이에 살 곳을 잃는 것을 말한다.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내가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 난리를 만나 타향을 떠돌아 돌아올 줄 모르는 자가 아님을 알겠는가.”[予惡乎知惡死之非弱喪而不知歸者邪?]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괄상(郭象)은 “어려서 고향집을 잃는 것을 약상(弱喪)이라 한다.”[少而失其故居名爲弱喪]고 주해했다.

49) 『韓溪遺稿』 1, 「曹佩之席上酬陳生」, p. 130. “異國猶同國, 今人亦古人. 願合中

럼 느껴진 것이다. 결국 위 시는 나라를 잃어 국적이 사라진 그가, ‘민족’과는 무관한 문명인이자 ‘유교인’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내면의 공허와 상실을 해소하려던 고뇌의 일면을 담고 있다. 북경에서 지부를 승인받고 성지 곡부까지 돌아본 그는 1914년 5월 다시 봉천으로 돌아왔다.

〈 봉천에 도착하여 복거(卜居)를 꾀하다 到奉天謀卜居 〉

칠년간 만 리 사이를 표류했으니                    七載漂流萬里間,  
 내 육신 어느 곳에 장사(葬事)지낸들 무방하리라.                    不干身骨葬何山.  
 천하는 지금 갈 만한 곳 없는 것 같으니 天下如今無可往,  
 요동의 이 옛날이 내가 편히 여기는 바라네.                    遼東伊昔我所安.  
 혼하의 도랑 서쪽에 대니 발작물 먹을 만했고                    渾渠西注田堪食,  
 연경의 철로 동쪽에 연결하니 길도 험난치 않았지.                    燕鐵東通路不艱.  
 진실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자 한다면                    苟得同心成共聚,  
 마땅히 공자가 가르침과 옛적 면모를 찾아야 하리라.                    當尋孔教舊時顏.<sup>50)</sup>

북경을 거쳐 곡부를 돌아보고 다시 봉천으로 돌아온 그는 복거(卜居)<sup>51)</sup>를 하며 자신의 말년을 헤아려보고 있다. 7년 동안의 해외 생활

韓俗, 共期堯舜臣.”

50) 『韓溪遺稿』 1, p. 169.

51) ‘복거’(卜居)는 『초사』(楚辭)의 편명으로, 「이소」(離騷) 제24번째 글이다. 이는 초(楚)나라 굴원(屈原)이 아첨하는 신하들에게 모함을 받고 쫓겨나 살 곳을 찾

을 “표류”(漂流)로 규정하면서, 고국을 떠나 찾아온 이곳에서 자신의 처지는, 곧 제대로 장사를 치르는 일 따위를 바랄 처지나 그럴 형편이 아님을 밝히며 자탄하고 있다. 북거를 앞둔 그의 뇌리에는 통화로 이주하여 혼하(渾河)를 바라보며 무성한 땅을 손수 개척했던 시간들, 그리고 공자교 운동을 위해 북경을 다녀오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이 복기된다. 그리고 곡부를 보고 난 뒤 그곳이라면 자신이 그나마 마음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다. 북거를 하려던 그에게 있어 당시는 연경에서 지부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애 동심으로 협력하고 서로 연대하는 일이 매우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판단하게 된다. 즉 자신이 북거할 곳은 공교회의 기치 하에서 동포들이 일심으로 같이 지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의 정신을 잃지 않고 요순시대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2)</sup> 그리고 그해 가을 노란 국화를 보던 그는 다시금 회한에 젖는다.

〈 중양절에 홀로 앉아 고국 뜰의 누런 국화를 떠올리다. 重陽獨坐憶故園黃花 〉

하늘 아래 어느 땅이 중양이 아니라마는 普天何地不重陽,  
누런 국화 고향에 부칠 뿐이니 참으로 한이네.

剛恨黃花寄故鄉.

대전에는 우로(雨露) 내려 비린내 많을지니 殿來雨露多腥穢,  
심사를 더럽힌 몇 촌의 향내만 있겠구나. 澆却心頭幾寸香. (其二)<sup>53)</sup>

게 된 것을 서술하는 내용으로 통상 오래도록 거처할 장소를 점찍는 것을 의미한다.

52) 실제로 그는 1915년 가을 곡부로 건너가 말년을 보내려 계획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것이 지연되었고 이듬해 그가 병을 얻으면서 무산되었다[왕원주 (2007), 「1910년대 전반기 한계 이승희의 중화사상과 민족인식」, 『역사교육』 103, 역사교육연구회, p. 219].

53) 『韓溪遺稿』 1, p. 130.

1914년 중앙철의 한때를 담고 있는 시이다. 지역의 땅 봉천에도 가을이 찾아와 국화가 만발하다. 국화의 외양은 고국의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그 국화를 보는 마음을 천양지차다. 친구들 없이 홀로 있던 그는 봉천의 국화 몇 잎을 따가 고향에 부쳐보며 깊고 아득한 향수에 젖어든다. 그의 시상은 고향을 넘어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확대된다. 고향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난의 상황이 떠오르는데, 당시의 상황이란 대전(大殿)에는 국화 향은 사라지고 우로로 인해 비린내[腥穢]만 가득할 뿐이었다. 설사 국화향이 있다고 해도 비참한 시국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위 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특별하고 유의미한 날이 올수록 고향생각과 나라에 대한 걱정은 가중되고 배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날이 오면 이산자, 즉 디아스포라가 된 자신의 복잡한 속내를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을사조약 체결 후 국내에 남아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던 그는, 국외로의 이거(移去)를 통해 유인석이 말한 “거지수구”(去之守舊)와 유사한 길을 택한다. 해삼위에 도착한 그는 한인 공동체를 일굴 희망의 땅을 찾아 의욕적으로 활동했고 또 말년에는 노구를 이끌고 직접 북경에 가서 공자교 지부를 승인받는 등 이른바 공자교 운동에 투신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정력적인 활동의 이면에는 이산자로서의 비애와 고달픔이 내재하고 있었다.<sup>54)</sup>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처지는 흔들리는 수초(水草)와 같다고 여겼고, 나라 잃고 임금도 잃은 유신의 정서가 내면을 지배했다. 고향과 가족을 향한 생각은 시간이 더 할수록 더욱 깊어지는데 독립과 민족의 단결은 더욱 요원하기만 하다.

54) 더욱이 당시는 동북 삼성의 한인들은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던 고아와 같은 처참한 생활을 했던 한국인들의 중국으로의 입적이 줄을 잇고 있었다. 나아가 북간도에서는 공교회와 간민회(墾民會)의 불화가 점차 격렬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근심도 늘어갔다[『韓溪遺稿』 1, 「東聞省韓人入籍有感」, p. 106; 「聞北間島孔教墾民兩會相爭有感」, p. 140 참조].

하지만, 그는 번민과 좌절에 사로잡혀 그저 한탄하는 ‘노유’(老儒)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유림이었다. 그 대안은 바로 공교(孔敎) 운동이었다. 그는 강유위 중심의 공자교 소식을 듣고 직접 북경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한국 유학의 실력을 증명하고 또 함께 연대하여 유교를 핵심 가치로 삼는 근대적 대동 사회를 구축하려 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그저 ‘수구’를 지향하는 닫힌 유교가 아닌 열린 유교운동이었고, 구국과 구민(救民)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자 유일한 길이었다. 마지막 유언 역시 이 ‘공교’ 운동과 연결될 만큼 그에게 공교는 커다란 의미였는데, 이처럼 그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의 그의 시들은 이역에 머물며 고향과 나라 생각에 깊은 탄식이 짙게 토로되었다. 요컨대 이 시기 그의 시는 ‘천하만국이 분쟁하여 서로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을 그치고 자기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하나 바꾸어’<sup>55)</sup>가는 대동(大同) 세계를 염원했던 재외 유림의 고뇌와 번민들의 결정(結晶)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1637년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과는 감히 비견할 수 없을 만큼의, 미증유의 비참함과 고통을 주었던 을사조약을 바라본 그는 더 이상 대한제국에서 살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울분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던 그는, 국가와 백성 그리고 유도의 활로(活路)를 모색했고 결국 해삼위로 건너갔다. 국내에 남아 기존의 방법을 검토하기보다, 전 세대의 유자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것이었

55) 이상호(2017), 「대동사회, 변법인가? 수양인가?」,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p. 264.

다. 1908년 해삼위로 건너간 그는 분산되고 흩어져 거칠고 모진 유민(流民)의 삶을 살고 있던 한인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유교공동체를 건설하여 보다 단결된 힘으로 각종 난간에 대응하려 했다. 중국의 강유위(康有爲), 진장환(陳煥章) 등의 공교회 운동을 접한 그는, 이 운동에 적극 공감하며 직접 그들을 찾아가 ‘동삼성한인공교회’ 설립을 승인받기에 이른다. 62세의 노인의 몸으로 해외로 넘어온 그는 바로 ‘지난 500년간 갈등과 반목을 반복했던 영남의 이황학과와 기호의 이이학과 인물들이 단일한 조직에 동참한, 한국 유교운동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을 성사시킨 핵심적 인물이었던 것이다.<sup>56)</sup>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이산자의 고뇌와 변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곧 그의 시 세계와 시정(詩情)의 변모로 이어졌다. 이런 배경에서 이 시기 그의 시에는 임금을 잃은 유신의 한 서린 심정과 함께 유민의 처지로 전락해 버린 방랑객의 정서가 대단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즉 그의 시는 해삼위와 중국 일대에서 노유(老儒)이자 망국의 유신으로 살아간 그의 내면을 매우 잘 보여주었다. 또한 해외에 머물면서 현지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것을 내면화하기보다 오히려 유자이자 한인(韓人)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출했다.<sup>57)</sup> 또한 박지원을 비롯한 수많은 문인학자들이 다녀간 사실상 ‘고정’된 형태의 ‘여행길’을 벗어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행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토론하는 과정에서의 작품들은, 근대 유림이 구축하

56) 서동일(2016), 「일제 초기 동삼성한인공교회의 설립과 활동」, 『역사와 현실』 99, 한국역사연구회, p. 244.

57) 기존 연구에 따르면 1910~20년대 중국 기행 작품은 모두 24편이고, 1편[조창용(趙昌容, 1875-1948)의 「북간도시찰기」(北艮島視察記, 1912), 한문현토체]을 제외하고 모두 순한문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목적은 주로 망명이나 망명지 선정이었다[최해연(2016), 「20세기 초 조선인의 중국 여행기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6-27].

기 시작한 새로운 면모였다. 즉 지면 관계상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 ‘북경’으로 직접 건너가 공교회 관계자이자 유학자였던 이문치(李文治), 설정청(薛正淸), 용택후(龍澤厚), 진환장(陳煥章) 등과의 교류 흔적을 담고 있는 한시와, 직접 곡부를 찾아가 공묘와 태산 등을 보며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은 이전의 한문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근대 한문학’의 국면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그의 시를 통해, ‘대한제국은 강상이 땅에 떨어지고 종묘와 사직이 붕괴 되어 곧 오랑캐의 땅이 될 것’이라 여기며 이역에 머물던 한 유림이 보여준 사투와 같았던 삶과 그 삶의 이면에 자리한 망국 유신의 비애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필자는 그의 다양한 시적 특징 가운데, 망국 신하로서의 직분과 유자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독립운동에 일조하기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번민과 이산자로서 느끼는 고뇌의 면모에 주목했다. 이렇듯 20세기 초 이산문학의 일면을 담아내고 있는 그의 한시는, 한국한문학의 영토를 보다 확장시키고 있다. 더불어 동 시기 중국으로 건너간 유인석과 같은 유림, 신규식과 같은 독립운동가 계열의 지식인 그리고 고국을 지키던 지식인들의 한시 작품과도 비교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대기 국외 지식인들의 세계 및 현실인식의 면모뿐만 아니라 근대 한문학의 비평 담론 역시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정치하게 살펴볼 것을 기약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자 료】

이승희(1976~1982), 『한계유고』(韓溪遺稿) 1~9, 국사편찬위원회.

### 【논 저】

- 김낙진(2018), 「주문팔현과 퇴계학자들의 토론에서 드러나는 한주학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 김영선(2014), 「『양아록』을 통해 살펴본 조선 중기 사대부가의 출산 관련문학」, 『연민학지』 22, 연민학회.
- 김종석(2004), 「한계 이승희의 공자교운동과 유교개혁론 문제」, 『철학논총』 10, 새한철학회.
- 김형목(2004), 「성주지역 국채보상 운동의 지역운동사에서의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박민영(2001), 「유인석의 국외 항일투쟁 노정」, 『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 서동일(2013), 「1910년대 한중유림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신정일(2007), 「영남대로 — 부산에서 서울까지 옛길을 걷다」, 휴머니스트.
- 유준기(2005), 「독립운동기지 한홍동 건설과 독립운동가의 망명 경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왕원주(2007), 「1910년대 전반기 한계 이승희의 중화사상과 민족인식」, 『역사교육』 103, 역사교육연구회.
- 이상근(1994), 「한인 노령(路嶺) 이주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호(2017), 「대동사회, 변법인가? 수양인가?」,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 이택동(2010), 「면우 곽종석의 당대 대응과 인식론적 기저」,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연구 학회.
- \_\_\_\_\_(2012), 「대계 이승희론」, 『시학과 언어학』 22, 시학과 언어학회.
- 조희연(2019),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묵재(默齋)의 육아관과 유아교육적

의미], 『인격교육』 13, 한국인격교육학회.

한길로(2020), 「대계 이승희의 「달폐일기」 창작 배경과 인물 형상 연구」, 『영남학』 7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_\_\_\_\_(2020), 「한말(韓末)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의 한시에 나타난 저항과 번민의 일면」, 『용봉인문논총』 57,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홍원식(1999), 「한주학파의 공자교 운동」, 『한국학논집』 2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원고 접수일: 2020년 10월 7일

심사 완료일: 2020년 10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5일

ABSTRACT

---

The Poemic Development of Before and After Exile  
abroad in Hangye Lee Seung-hee (韓溪 李承熙)'s  
Chinese Poems

Han, Gilro\*

In 1908, Hangyue Lee Seung-hee (1847-1916) went to Vladivostok to establish a Korean community and an independence movement base. He was also a Confucian scholar who sought to restore Confucian teachings through the Confucius movement. In this paper, his Chinese poems are analyzed and reviewed.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values, and literary significance, especially before and after exile, of the poems will be examined. The state and dynastic situation had become so unsettled that he decided to seek asylum abroad. At that time, he spent his daily life grieving and agonizing, acknowledging the reality. These characteristics are easily found in his poems; his heart, which had to leave his hometown and country, was very bitter and sad. His time overseas was spent in Vladivostok, Russia, and Manchuria, China; he spent approximately eight years overseas prior to his death. As he began to live abroad, some changes took place in his poems. His longing for the motherland and hometown in-

---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Jilin University

creased, and the sorrow of asylum seekers without fixed dwellings was further enhanced. In summary, his poems show the anguish of an intellectual who decided to leave the Korean Empire for failing to withstand the collapse of the dynasty and the fall of the state. It also shows the psychological pain and grief of Confucian intellectuals struggling in a different space. Also, his literature shows the early and original aspects of Korean Diaspora literature. Furthermore, it is meaningful that his poems demonstrate both resistance and self-reliance that were never created in colonial Joseon, which was locked in colonial control and strict censorship.

